

2017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논술우수자 전형 문제 및 해설 (인문계열-오후)

※ 본 논술문제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광운대학교에 있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시험시간은 2시간(120분)입니다.
- 답안지 상의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검정색 볼펜”으로 정확히 기재 및 마킹(진하게)바랍니다.
- 답안 작성란은 “검정색 볼펜” 또는 “검정색 연필(샤프)”로 작성하십시오.
 ※ 검정색 이외(빨간색, 파란색 등) 사용 금지
 ※ 지우개,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답안지에는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지 마십시오.
- 답안지 1장 이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

[문제1] 제시문 (가)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제시문 (다)와 (라)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두 가지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권을 기초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 성장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첫째는 빈부 격차 문제이다. 개인 간에는 육체적·정신적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부의 대물림이나 불로소득과 같은 요인에 의해 빈부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면 계층 간 갈등이 발생하여 사회 통합에 어려움이 생기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 둘째는 물질 만능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 문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힘으로써 인간을 상품화하여 값을 매기거나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풍조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 결과 인간다움을 보존하고 추구하려는 품위 있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마침내는 자기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마저 상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나)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정육점 주인, 제과점 주인, 양조공장 사장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도적 관심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의도가 전혀 없으며, 단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의 의도에 전혀 들어 있지 않은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실제로 그가 사회의 이익을 증가시키려고 의도할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공공의 선을 증진시키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개인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통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 원리가 여기에 있다.

(다)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물질적으로 성취한 외형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성의 명령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내면적 자세에 있다. 정념이나 욕망에 현혹되어 이성적 판단력이 흐려지면 인간은 도덕과 무관한 육체, 권력, 부, 명예 등에 마음을 빼앗겨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정신의 의연함과 평온함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다수 현대인들의 마음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세속적인 물욕이나 번덕스러운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도덕적 각성을 통해 이성적 자아와 절제의 미덕을 되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삶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라)

우리는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고 말한다. 정의란 좁게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를 뜻하지만 넓게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뜻하는 것으로,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덕목 중 하나이다.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사라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한 사회의 정의는 사적인 개인의 편협한 입장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도출된 보편적 원칙에 근거할 때 구현될 수 있다. 공공의 선을 구현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보편적 계약 상황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 계속>

그렇다면 언론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만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된다면 그 사회는 충분히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만으로는 우리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이라는 일견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불평등한 조건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기본적 자유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실질적 의미에서의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공의 이익 가운데 더 많은 몫을 더 먼저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우선적이고 차등적인 분배를 실행하자는 것으로, 한 사회의 소득과 부를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어 절대적 평등을 실현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다음 장 계속>

[문제2] 제시문 (가)의 ㉔의 비율 추이와 ㉕의 비율 구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제시문 (나)와 (다)를 이용하여 각각 설명하고, 제시문 (나)의 **주변 사람들이** 일탈자에 대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문 (라)를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다음은 2013~2015년 갑국의 청소년 범죄 현황을 횡수별로는 초범과 재범 이상으로, 지역별로는 방법적 사회 환경이 잘 조성된 A지역과 방법적 사회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은 B지역으로 구분하여 나타난 자료이다.

<표> 갑국의 청소년 범죄 현황

연도	전체 범죄	청소년 범죄	구성비	㉔청소년 범죄의 횡수별 비율		㉕청소년 범죄의 지역별 비율	
				초범	재범 이상	A 지역	B 지역
2013	1,932,729 건	69,211 건	3.6%	34.3%	65.7%	38.0%	62.0%
2014	1,989,862 건	88,104 건	4.4%	30.2%	69.8%	35.0%	65.0%
2015	2,472,897 건	134,992 건	5.5%	28.5%	71.5%	34.0%	66.0%

(나)

실패한 기업가를 용인하지 않는 국내 풍토에서 우리나라의 청년 기업가들은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다고 느낀다. 반면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서는 성공 못지 않게 실패도 소중한 자산으로 여겨져 ‘창업-성장-재투자-재창업’의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풍토가 조성되어야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업에 뛰어들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다.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는 것도 결국 패자를 용인하지 않고 한 번 실패한 사람을 무능한 자로 내쳐버리는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낙인 이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저지른 특정 행위로 인해 타인에 의해 일탈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그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에 맞추어 형성하게 된다. 어떤 사람의 행위를 **주변 사람들이** 나쁜 행위로 규정해서 낙인을 찍으면 그 사람은 일탈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낙인 때문에 한번 일탈자라는 정체성이 형성되면 일탈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과자가 주위의 시선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그 예인데, 이러한 낙인 효과로 인해 일탈 행동은 더욱 강화된다.

(다)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짐바르도 교수는 매우 흥미있는 실험을 했다. 치안이 다소 허술한 지역의 골목에 보닛(엔진 덮개)을 열어 놓은 두 대의 자동차를 일주일간 방치해 두었다. 그 중 한 대는 보닛만 열어 놓았고, 다른 한 대는 창문을 조금 깨 상태로 두었다. 일주일만 지나 후 두 자동차의 상태는 확연히 달랐다. 보닛만 열어 둔 자동차는 특별한 변화없이 비슷한 상태를 유지한 반면,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는 배터리와 타이어가 도난 당하고 낙서가 되어 있는 등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다.

이를 이론화한 ‘깨진 유리창 이론’은 작은 문제를 방치할 경우 무질서와 범죄가 확산되어 도시 전체가 무법천지화 또는 슬럼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뉴욕의 지하철은 연간 60만 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하여 악명 높은 범죄 지하철로 불렸다. 뉴욕 당국은 낙서가 또 다른 낙서와 범죄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지하철 차량 6,000여 대에 그려진 낙서를 지웠다. 놀랍게도 3~4년이 지나자 지하철의 범죄율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는데, 뉴욕 지하철의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 인간의 일탈 행동은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장 계속>

(라)

톨레랑스는 18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계몽사상가인 볼테르가 “당신의 사상에 반대하지만 그 사상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편에 서서 싸울 것이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한다. 톨레랑스는 차이를 긍정하는 논리일 뿐만 아니라 극단을 부정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톨레랑스는 자신의 독단이나 보편타당함을 일방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진리에 다가설 수 있도록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어울리자는 뜻을 담고 있다.

공자와 그의 제자 간의 대화가 담긴 『논어』의 ‘자로편’에도 소인배와 구분되는 군자의 사람됨을 논하는 부분에서 톨레랑스와 유사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이 나온다. 군자는 타인이 자신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할 줄 아는 반면, 소인은 끼리끼리 어울릴 뿐 함께 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여기서 화(和)는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과 공존의 논리를 뜻하는 반면, 동(同)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 가치만을 허용하는 지배와 흡수 합병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남들과 사이좋게 지내되 의를 굽혀 좇지는 말아야 하고, 남들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신의 중심과 원칙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군자의 도리이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동이불화(同而不和)가 아니라 화이부동의 자세가 아닐까.

<끝>